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15) 에필로그

돌아가자, 오월도 이제 미완의 과제 해결하고 일상으로 가자

<목 차>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진상규명 이뤄야 진정한 명예회복 5·18 행사도 이제 시민참여형으로 오월정신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1980년 계엄군의 총칼아래 광주 시민들이 흘린 피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환점이 된 것이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5·18로 인해 한국은 민주화를 쟁취했고, 이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홍콩 등지에서 한국의 5·18을 모델로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어떤 민주주의 운동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40년의 세월동안 5·18은 수많은 시련에 흔들려 왔다.

왜곡과 폄훼로 5·18의 진실이 가려져 고통받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5·18은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느덧 5·18은 '역사'로 굳어 가고 있다. 우리도 모른 채 5·18은 그렇게 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옳은 일이라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섰던 1980년 광주 오월정신이 이제는 한국 현대사를 바꾼 큰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이자 그저 기념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40주년 5·18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40년이 지난 현재 앞으로의 5·18이 남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아직 남은 5·18의 과제 = 5·18은 긴 세월동안 수많은 도전에 아파왔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상규명의 활동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5·18의 진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진실이 된다.

지난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법적 인정은 획득했지만, 발표명령·헬기사격·행방불명자와 암매장·민간인 집단학살·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사회적 인정은 불완전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5·18유가족과 광주는 아직도 진정한 명예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0주년을 맞는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출범했다. 이번 진상조사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내 정은 청산이오' 헌정 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진상조사위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렇기에 5·18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진실을 밝히는데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문서나 기록이 조작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많다. 또한 진실의 입을 열어 증거인자들도 이미 상당수 고인이 돼버렸다.

하지만, 광주의 진실은 뿌리가 깊다.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닫혔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40년간 아파왔던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오월영령의 한을 풀어줘야만 한다.

다가올 50주년의 5·18이 또다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에 모든 이들이 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5·18 = 5·18은 과거형이 아니다.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의 정신의 뿌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5·18 후세대가 사회의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1980년 5·18을 경험하고 공유했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이다. 역사적식과 사회의식은 훨씬 개별화돼 있고 다양하게 분산돼 있다.

미래의 주인이 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5·18은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에 가까운 역사로 남고 있는 것이다.

5·18에 대한 의의와 정의, 설명 등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좌위적인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느낌도 어쩔 수 없는 이유이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지난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오월영령들의 묘소를 찾아보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후세대는 국가주의적 독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세대에기에 국가의 처절한 폭력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들은 5·18의 진실을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1980년 오월의 의미를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들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5·18 40주년을 맞는 우리는 5·18의 오월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도착했다.

결국 5·18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5·18의 재현과 추모 성격에 치중, 단순한 5·18정보 제공에 집

중하기보다는 시민 참여형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40주년의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를 변모해야 할 도전에 직면했다. 애초 시민 참여형으로 준비됐던 사업들이 결국 모두 온라인 중심으로 변경돼 버렸다. 하지만 희망은 보였다. 대체로운 행사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참여를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사업들도 많이 진행됐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자'와 같은 영화 한편이 온 국민에게 5·18을 인식시켰던 점을 자세히 들여

다봐야 한다. 영화나 뮤지컬, 연극 등 유무형의 문화 활동도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문화사업을 통한 5·18알리기는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보다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5·18은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부담스럽다는 껍질을 깨트리고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야 할 시점이다. 5·18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어야 5·18은 진정한 우리의 역사가 될 것이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시설·전시회 등 젊은층 참여 기회 확대를

최경기

전남대 5·18연구소장

2020년의 5·18이 지나가고 있다. 1980년의 5·18이 국가폭력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항쟁이었다면, 1980년 이후의 5·18은 해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형성됐다. 어느 해는 금남로를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시위가 그 해의 5·18이었다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참배객들로 광주지역이 소용돌이쳤던 5·18도 있었다. 그렇다만, 올해의 5·18은 어떤 모습일까? 몇 장면이 뇌리에 떠오른다.

첫 번째는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헌법이 개정될 경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항쟁 발발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서울 한복판에서 '5·18특별전'을 개최한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는 5·18 40주년 기념일에 지만원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현충원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집회를 개최한 장면이다. 이들은 애초 추모 행사를 연다며 당국의 협조를 얻은 뒤 실제 행사에서는 '5·18은 김대중 joke들과 북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5월 6일 자유연대라는 조직은 광주 시 일원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집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세 번째 장면은 광주-전남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에서는 5·18 관련 기사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기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의 동정을 보도한 기사에서 일부 5·18 기념식이나 광

주 방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5·18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5·18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시각과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각, 그리고 무관심한 경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각은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세력은 다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사실 40주년을 기점으로 5·18은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도 1980년에 21살이었던 대학교 2학년들이 2020년에는 회갑을 맞는다. 당시에



는 피 끓는 청년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회한 등 어떤 형태론든 5·18과 개인적인 사연을 갖는 세대가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층인 20대에서 50대는 앞 세대에 비해 5·18에서 자유로우며,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5·18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세대별 인식은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필자는 2003년부터 한국 및 일본의 대학생들과 함께 '동아시아대학생평화인권캠프'를 1년에 두 번씩 조직·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권현장을 방문하면서, 해당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나 인식, 생활방식 등을 고민하는 캠프이다. 그래서 필자는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3~4년에 한 번씩 광주와 전남 지역의 5·18 현장들을 방문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5·18 현장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기념관들의 컨텐츠가 매우 유사해서 다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정답을 정해 놓고, 그것을 강요하는 등 너무 고압적이다", "피해자들이 고생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별다른 감정을 갖기 어렵다" 이들은 5·18 기념시설들에서 그것을 겪은 세대의 경험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만 있고, 젊은 세대에게 주는 사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5·18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기념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다양한 5·18 관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시설이나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이 5·18 관련 물건을 만들거나 5·18 관련 공연 등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SNS 등을 이용하여 성공을 모으고, 참여자도 찾는 등 매우 참신하고, 성공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행태에서 우리는 5·18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